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22년 7월 15일 발행 (300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300호 본지 지령 특집호

07 ISSUE
국내 안경 가격을 미국 • 영국 • 일본 등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본 결과, 완전 최저 수준임이 확인돼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4 NEWS IN NEWS
규제샌드박스의 최종 심사기간이 3년에서 90일로 단축되는 등 스타트업 기업들의 보다 강력한 도전이 예상되어 우려되고 있다.

참 좋은 제품 너무 착한 가격

나도코리아

안경공구 • 안경원 기계 • 광학기기 • 소모품 • 안경부속 • 안경줄
디스플레이 • 가방 • 안경케이스 • 안경서적 • 판촉물 • 안경테
선글라스 등 안경원 취급 모든 제품 구비

나도코리아 TEL 053.353.9992 • FAX 053.351.4063
스마트폰 홈페이지 m.nado.kr • www.nadokorea.co.kr

한국안경 아카데미 & 안경피팅 세 미 나

세미나만 참가만해도! 조금만 적용해도!
매출이 올라가는 안경피팅 강의

2022.08.08
am10:00~pm12:00

대 상 안경피팅에 관심있으신 안경사
안경원에서 피팅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안경사
피팅을 한번도 배워본적 없는 안경사

인 원 선착순 10명 (선착순 선정이나, 교육 수요 많을 시 내부심사를 통해 교육생 선발 예정)

장 소 경기도 의왕시 경수대로 273 3층

문 의 TALK 한국안경아카데미

참가비 10,000원

KGA 한국 안경 아카데미 KOREA GLASSES ACADEMY

NAVER 베스트셀러 선정

YES24.COM 대학교재 TOP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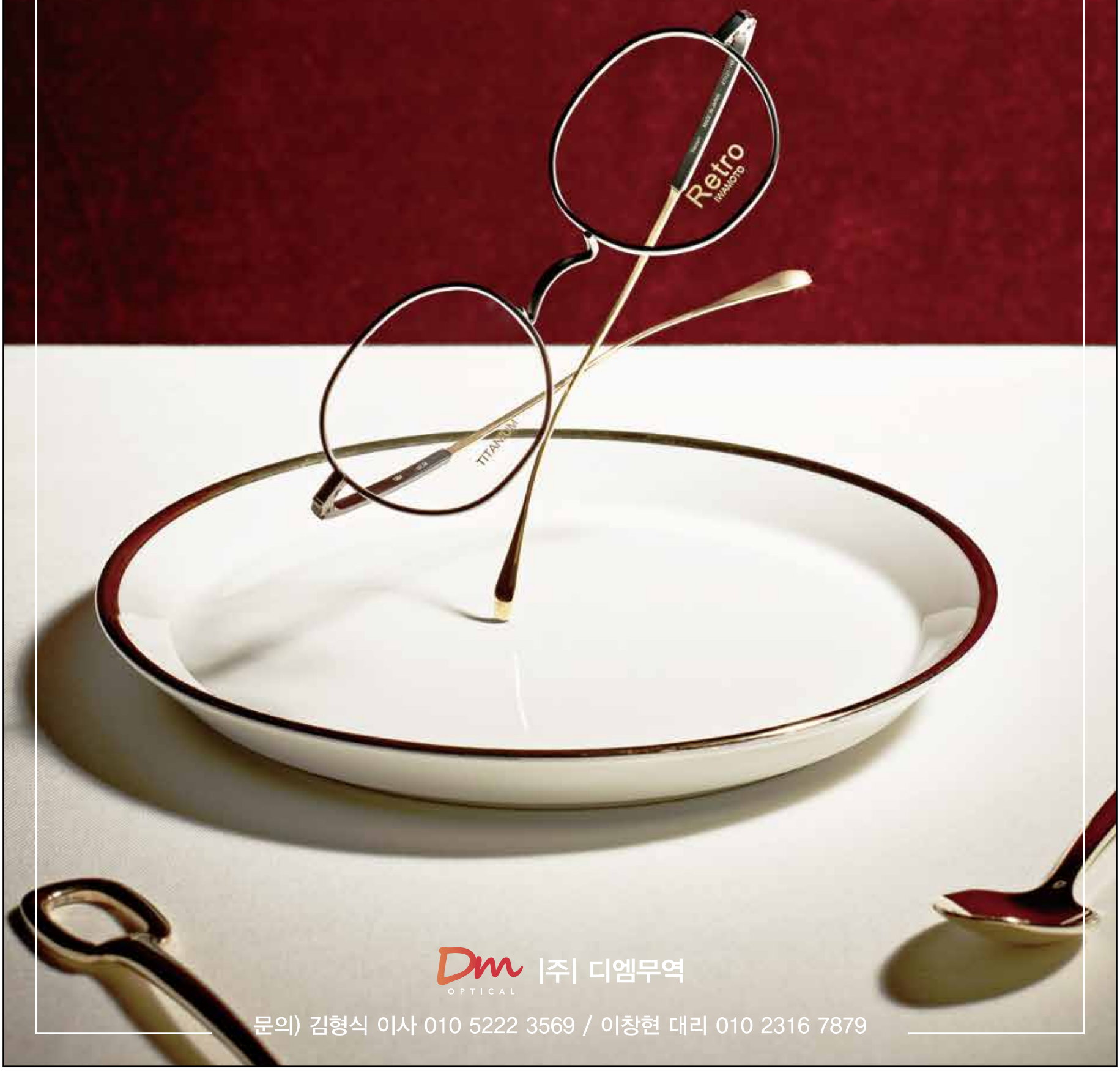
강사 : 손 재 환 안경사

1990년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졸업
안경사면허취득 (면허번호:3825)
2009년 (주)무극안경 창립, 대표이사
2012년 3FACTORY 안경체인 대표이사
2015년 EYE.DECO 안경체인 대표이사
現 아이데코 본점(경기도 의왕) 원장
現 주식회사 지앤디 대표이사
現 한국 피팅 아카데미 강사

안경혁명 저자 / 안경피팅의 정석 저자

Retro

IWAMOTO



DM OPTICAL |주| 디엠무역

문의) 김형식 이사 010 5222 3569 / 이창현 대리 010 2316 7879

CARVEN
eyewear
문의
서울,경기도 : 010-9147-5689 / 대전,충청도 : 010-8632-9374 / 부산,제주도 : 010-4452-7154
대구,울산,경상도 : 010-3515-4826 / 광주,전라도,강원도 : 010-8629-7641
@carveneyewear / @2faceopt
@CARVEN (카카오채널)
홈페이지 : www.carven.co.kr
전화 : 053-353-7851
CARVEN
eyewear
2-Face
OPTICAL

TOK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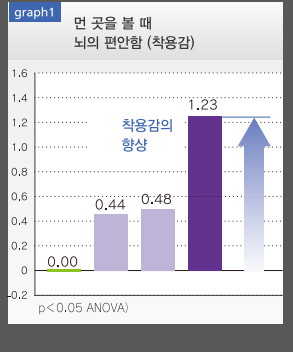
뇌과학 안경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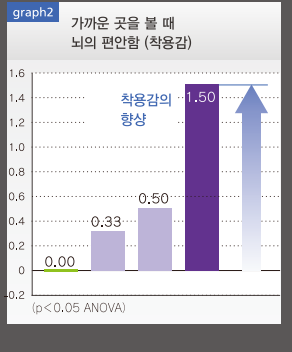
RESON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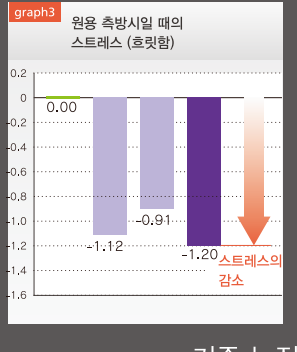
레조나스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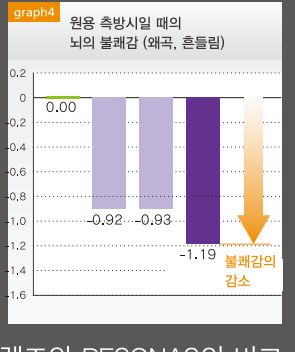
RESONAS로 일상의 편안함을 즐겨보세요

인간의 감성에 관련된 3가지 뇌파의 변화부터, 감성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장치를 사용









기존 누진렌즈와 RESONAS의 비교

현대 송도점 (아울렛)

현대 중동점 (백화점)

유명 백화점, 아울렛, 대형 마트의 창업을 책임집니다

“창업비용 1.5억~2.5억”

상품 재고 관리 / 자동 발주 시스템 /
세무 컨설팅 / 매장 운영 관리 지원
가맹상담문의 : 02-3016-8117, 8161

단, 평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안경은얼굴이다 LOOK Optical since1993

잠실 롯데월드몰점 (쇼핑몰)

현대 천호점 (백화점)

롯데 동부산점 (백화점)

롯데 의왕점 (아울렛)

당신과 세상 사이

C3™ 안경렌즈 Galaxy 8K

NEW

세상의 아름다움은 당신에게 큰 감동이 됩니다.
당신에게 더 멋진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 당신과 세상 사이에
신제품 **C3 Galaxy 8K** 렌즈가 있습니다.

- 독일 GF공법으로 넓고 편안한 시야
- 개인별 인체공학적 특성과 착용 습관까지 고려한 완전맞춤렌즈
- 안구의 화선 각도에 따른 설계 및 특수 최적화 설계 적용

C3™ 나의 LIFE STYLE에 꼭 맞춘 —
프리폼 개인별 완전 맞춤형
누진다초점렌즈

www.hslens.co.kr

Optic Weekly

www.opticweekly.com

깊이가 다른 안경 전문신문 주간 옵틱 위클리 2022년 7월 15일 발행 (300호)

ABC 부수인증매체 한국ABC협회

국내 안경렌즈 완벽 구비!
기능성 렌즈 최저가 판매!
콘택트렌즈전문점
늘푸른옵티칼
안경렌즈, 무엇이든 상담하세요.
www.evergreenoptical.co.kr
1544-8668 FAX 02.318.0780
케미렌즈 서울대리점

국내·외 유명 브랜드 다량 확보 캣츠아이
엄청나게 다양하고 국내·외 유명 브랜드 최저가로 판매!
다양한 수입안경 / 선글라스 및 국산테
캣츠아이 문의전화 010.9844.8255

축 지령300호

20년째 뒷걸음질 치는 안경가격… 이젠 현실화하자!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한국 안경가격… 국내 물가 20년간 300% 안팎 인상할 때 안경가격은 제자리 또는 뒷걸음질

20년째 뒷걸음치고 있는 국내 안경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안경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라 최악의 수익률로 안경원이 폐업에까지 내몰리면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례로 국내 안경원에서 20년 전에 판매하던 중굴절렌즈, 고굴절렌즈, 뿔테, 금장테, 티탄테의 판매가가 현재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짐으로써 가격 인상이 절실해지고 있다.

올해 초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2년 전인 2000년도와 2022년도의 물가를 비교해 보면 안경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이 뒷걸음쳤는지 금세 알 수 있다.

먼저 2000년에 2,742원이던 자장면 가격은 2022년 올해는 5,769원으로 인상했고, 삼겹살은 3,800원(2000년)에서 14,385원(2022년), 전철은 500원에서 1,250원, 택시는 1,3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해 대부분의 물가가 300% 내외로 인상됐다. 모든 제품의 가격이 20년간 큰 폭으로 인상되는데 유독 안경가격만 뒷걸음친 것이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소비자물가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는 동기대비 9.1% 뛰어 41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고, 유로존은 같은 달 8.1%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5월 소비자물가 역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5.4% 오르고 있다.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국내 안경 판매가격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 다음은 미국 등 주요국들의 평균 안경가격을 객관적인 지표와 현지 조사원 등을 통해 비교한 자료다.

▶미국, 중굴절+메탈테 30만원에 판매

미국 소비시장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소비자협회의 '컨슈머 리포트(Consumer Reports)'의 '평균 안경가격(2019)'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장에서 도수안경의 평균가격은 검안료 140달러(약 18만 4천원)를 추가해 약 203.6달러(약 26만 8천원)라고 소개하고 있다. 해당 자료가 2019년 조사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의 가격은 이 보다 높을 것이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안경가격이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사진은 안경을 피팅 중인 미국의 안경사 모습(이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전혀 관련이 없음).

실제로 버몬트州의 몬트필리어市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C원장은 "각 주마다 안경가격에 큰 차이가 있지만 중굴절 렌즈를 장착한 메탈테라는 조건이라면 약 240달러(약 31만 5천원) 이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미국 안경가격엔 안경원마다 상주하는 검안의(O.D.)가 청구하는 140~160달러의 검안료가 포함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안경가격 4년 만에 17% 상승

국적에 관계없이 영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혜택 받는 NHS(National Health System, 국가의료보험)로 인해 영국에선 시력검사와 치과치료 등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거의 없다. 하지만 도수안경을 구입할 때는 별도의 비용이 청구되는데, 현지의 안경 프랜차이즈인 스펙세이버즈(Specsavers)의 자료를 보면, 처방안경의 비용은 평균 200~220파운드(약 31~34만원)이다. 영국의 최대 안경 프랜차이즈인 데이비드 클라우드(David Clulow)의 2018년 당시 기록엔 웨일즈 지역에서 안경의 평균 비용은 183파운드(약 28만 4천원)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영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안경원에서 처방안경의 평균가격은 4년 전보다 약 17% 가량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톡톡톡

"「옵틱위클리」의 지령 3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앞으로도 안경계와 공동 성장하길 바랍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한 안경원 원장)

"한여름인데도 선글라스 고객은 도통 볼 수가 없네요. 이제 정말 선글라스는 안경원의 아이템이 아닌가 봅니다." (경기도 안성시의 한 안경사)

▶일본, 저가 추세지만 한국보단 고가

도쿄상공리서치의 2020년 자료에 따르면, 일본 관서지방에서 안경테와 안경렌즈를 조제한 평균 안경 가격은 약 2만엔(약 19만원)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 안경시장과 비교하면 100% 이상 비싼 가격이지만, 1988년 진스(JINS)와 1993년 조프(Zoff) 등 저가 안경체인이 등장하면서 가격이 꾸준히 하락해 현재 저가품을 판매하는 안경원에서 가장 저렴한 안경은 3천~5천엔(2만 8천~4만 8천원)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국내 안경시장보단 고가라는 것에서 우리 시장의 안경가격이 얼마나 싸구려로 전락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중국, 고급안경은 20만원 이상 판매

가격이 저렴한 안경을 대량 생산하는 중국이지만 안경가격만큼은 우리나라 시장보다 높게 판매하고 있다.

중국의 가격비교 사이트 '허즈비짜왕(盒子比價網)'의 자료에 따르면 티타늄 도수테는 100위안(약 2만원), 일반 단초점렌즈는 70위안(1만 4천원) 정도에 가격이 형성돼 있다. 다만 중국산이 아닌 에실로 등 외국산 안경렌즈는 2,000위안(약 40만원) 이상의 고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중국 최대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엔 '베이징의 안경가격은 얼마인가'란 문의가 올라와 있는데, '일반적인 안경은 500위안(약 9만 7천원) 정도이며, 고급품은 1,000위안(약 20만원) 이상'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GNI)을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2019년 GNI는 3만 1,349달러, 같은 기간 중국은 1만 88달러로 국내 안경 가격을 중국 안경가격에 대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면 일반 안경은 약 291,000원(1,500위안), 고급품 안경은 600,000원(3,000위안)이다. 이것만 봐도 국내 안경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초저가로 형성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최근 페이스북의 '안경사사랑방'엔 한 안경사의 다음과 같은 글이 게재됐다.

'모든 물가가 연일 고공행진이다. 그래서나 혼자라도 오늘부터 모든 제품을 30%씩 인상했다. 안경원이 사회에 봉사하는 영업장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안경가격의 현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김태용 기자

'안경사의 날' 기념 5행시 공모전

제33회 안경사의 날 맞아 안경사의 발전 응원하는 5행시 공모… 8월 31일 마감

㈔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가 오는 9월의 제33회 안경사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안경사의 날'을 운자로 5행시를 완성하는 영상 콘텐츠를 오는 8월 31일까지 공모 받고 있다.

공모 주제는 안경사의 발전을 응원하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내용이며, 응모자격은 안경사 및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대학원생까지 가능하다. 개인 또는 팀(3인 이하)으로 참여 가능한 이번 공모의 접수는 60초 이내의 MP4파일 형식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webmaster@optic.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당선작은 안경사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영상으로 발표하고, 당선자에겐 소정의 상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02)756-1001

DEFY THE BRIGHT

Frames by ic! berlin – Lenses Transitions® Gray

XTRACTIVE®
NEW GENERATION

트랜지션스 XTRACTIVE 출시

가장 진한 변색
완벽한 보호

Transitions™
Light
Intelligent
Lenses

Transitions and XTRActive are registered trademarks, and the Transitions logo is a trademark of Transitions Optical, Inc., used under license by Transitions Optical Limited. ©2021 Transitions Optical Ltd. Photochromic performance is influenced by temperature, UV exposure and lens material.

독자 제현과 안경 관계인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맹서(猛暑)에 본지 지령 300호를 맞는다.
월간 아이센스를 창간한 1993년 6월부터는 30년째요, 옵틱위클리는 2010년 1월 31일에 1호를 발행한 이래 지령 100호는 2014년 3월 15일, 지령 200호는 2018년 5월 15일을 거쳐 2022년 7월 15일에 300호를 맞는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뒤돌아보니 자랑보다 부족함뿐이다. 신문을 발행할 때마다 업계의 등대 구실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송구스러움만 크다. 본지 발행 300호 동안 안경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이나 미래 창달도 못했다. 업계에 노정된 문제만 나열했지 매듭도 풀지 못했다. 기본 책무와 역할에 부족했음을 인정한다.
다만 세월이 쌓일수록 독자 제현과 업계 관계인들이 보내주신 성원의 감사함은 산처럼 커지고 있다. 본지에 보내주신 깊은 성원에 보답하는 것은 오직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리라.
독자 제현과 안경 관계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본지 편집진 일동

주간 옵틱위클리 3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대한안우회
회장 심기수 외 임직원 일동
02)3147-1002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영화 외 임직원 일동
053)358-0991

인천시안경사회
회장 박종달 외 임직원 일동
032)424-5502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
회장 안성호 외 임직원 일동
1544-5769

그랑프리안경체인
대표 김원철 외 가맹점 일동
02)771-9082

네온TEC
이철석 대표 외 임직원 일동
1644-2806

스마트폰 카메라로
케미 QR 코드를
스캔해주세요!

케미 안경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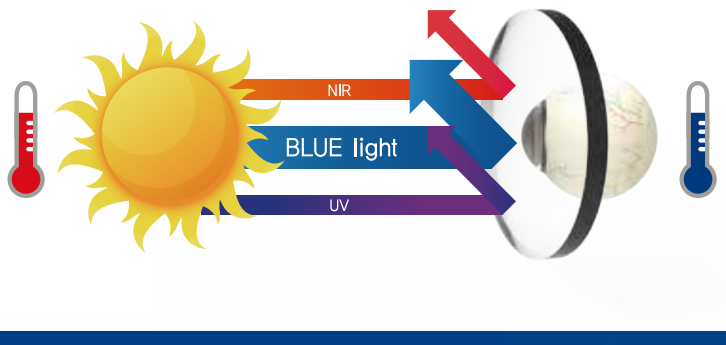
"프리미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렌즈"

케미 IR 근적외선 차단렌즈 LINE UP

[1.60 ASP] [1.67 ASP] [1.74 ASP]

[1.56 ASP] [1.60 SP]

[1.56 SP]



IR 근적외선 차단렌즈 LENS

근적외선 + 블루라이트 + 자외선 동시에 차단!

케미 IR LENS는 눈에 유해한 근적외선 및 블루라이트,
자외선을 차단해 건강한 시 생활을 제공하며,
광노화가 일어나기 쉬운 눈 주변의 피부를 보호하고
예방시켜주는 기능성 렌즈입니다.

www.chemilens.co.kr

축 지령300호

‘안경계 미래화 추진 노력에 감사’

「옵틱위클리」의 지령 300호를 5만여 안경사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300호까지 오면서 여러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오랜 시간 정론지로서 업계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옵틱위클리」가 지금까지 수행해온 역할 그 이상으로 업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안경계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욱 큰 분발을 기대합니다.

대한안경사협회 협회장 **김종석**

대한안우회 회장 **심기수**

‘매번 기다려지는 신문’

창간 이후 지금껏 「옵틱위클리」는 우리나라 안경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늘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로 안경업계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신문이기에 우리 회의 원로들은 매주 「옵틱위클리」를 학수고대(鶴首苦待)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업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길 바랍니다.

한국안경렌즈도매협회 회장 **김영환**

‘신뢰와 원칙을 지키는 신문’

「옵틱위클리」의 지령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창간 이후 지난 시간 동안 유익한 정보와 알찬 기사로 업계 발전에 일조한 귀 신문의 발행인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신뢰와 원칙을 지키며 우리 모두가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론지로서의 위치를 고수해 주십시오.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 원장 **진광식**

‘신뢰와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길’

국내 최고의 안경 전문지 「옵틱위클리」의 제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한국안광학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론지로서 자긍심을 지키며 안광학업계의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신뢰받고 사랑받는 언론으로 도약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영화**

‘정론지 역할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신문이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안경업계의 정론지로서 지령 300호를 맞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2010년 1월 창간 이후 「옵틱위클리」는 모든 업계인들이 기억하듯이 전문지 본래의 사명에 충실한, 안경업계의 공기(公器)로서 그 역할을 다해왔고 향후에도 지금처럼 꾸준히 발전하길 기원 드립니다.

대한콘택트렌즈제조협회 회장 **안성호**

‘안경산업 발전에 큰 기여하길’

그간 「옵틱위클리」는 국내외 안경관련 뉴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논평과 해설을 통해 안경계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안경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옵틱위클리」가 한국 안경업계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주체가 되어 주시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옵틱위클리」 지령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안광학회 회장 **심현석**

‘올바른 여론 형성에 찬사’

12년 6개월 전 안경업계에 등장한 「옵틱위클리」는 지금껏 업계의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전국 1만여 안경원을 비롯해 안경 제조 및 유통사, 학계, 단체와 함께 안경전문 매체로서 그 소임에 더욱 전력해 주길 기원합니다. 모든 업계인들과 함께 「옵틱위클리」의 지령 300호를 축하드립니다.

대한시과학회 회장 **김정희**

‘300호 발행을 축하합니다’

유익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경업계의 든든한 동반 역할을 해주신 「옵틱위클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콘텐츠와 전문성을 갖추어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양한 분야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안경업계의 발전에 일조하는 영향력 있는 정론지로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한국안경광학과교수협의회 회장 **김상현**

‘다양한 정보 제공에 감사’

「옵틱위클리」의 지령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옵틱위클리」는 지난 기간 동안 안경업계의 현황, 보건의료 정부정책과 새로운 트렌드 소개, 해외 안경사 관련 교육과정 제공 등과 같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다양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업계와 학계 구성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패션테크기업협의회 회장 **민병대**

‘안경인의 사랑을 받는 신문’

「옵틱위클리」의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13년 동안 안경계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늘 새로운 정보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가감 없는 논평으로 안광학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안광학산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문제점에 대한 질타로 안경인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옵틱위클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안경원, 갈수록 매출↓ 걱정↑… 전문성 강화가 정답

'안경원 매출, 이젠 경쟁보다 시장 대응과 전문화로 승부해야'… 안경관련 산학연의 소통과 협력 중요

지금 국내 안경원은 10곳 중 9곳이 매출 하락에 시달리고 있다. 십 수년째 계속되는 만성적인 매출 하락이다. 그러나 안경원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안경원 사가 국가로부터 국민의 시력보전을 위한 준의료적인 업무를 부여받은 때문이다. 안경사들이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또 안경원 앞에 놓인 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편집자 주

해마다 줄어드는 **안경원 매출** **안경 조제가공료 현실화 시급**

국내 안경원의 수익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통의 급격한 변화와 안경원 과다 개설에 따른 가격경쟁 때문이다. 선글라스 고객이 해마다 줄어드는 상황에서 공테 고객은 계속 늘어나고, 콘택트렌즈 마진율은 완전 최악인 상황에서 노안교정수술의 유행도 안경 유통 시장을 흔들고 있다.

본지는 안경원의 할인경쟁을 예방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견인을 위해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안경사 대상으로 안경 조제가공료의 유료화 설문을 실시했다. 그 결과 2017년 서울안경사회 소속 안경사 2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8.5%(255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2019년 1월에 실시한 '안경 조제가공료 청구'를 묻는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 211명 중 무려 94.3%인 199명의 안경사가 '조제료를 청구하자'고 응답했다.

지금 현재는 안경원에 획기적이고 특별한 제품이 공급되지 않는한 매출 올리기가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 안경사들은 매출 상승을 위해 안경의 조제가공료를 현실화하자고 말하고 있다. 비록 조제가공료의 실시로 제품의 원가 공개 등 제반 문제가 뒤따르겠지만, 안경원의 매출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획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안경사들 주장이다.

안경 조제가공료의 현실화. 안경사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요구이다.

소비자 신뢰 잃은 **안경 가격** **가격정찰제 철저히 시행해야**

국민들의 안경 가격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까.

본지가 지난 2016년 12월 전국의 성인 남녀 214명을 대상으로 안경 가격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묻는 설문조사 결과,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27.6%(59명), '신뢰하지 않는다' 58.4%(125명)로 나타나 전체 소비자의 86%가 안경 가격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소비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안경 가격에 거품이 많다고 믿고 있다. 아직도 전국 곳곳의 안경원에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 '안경 파격할인' '안경 80% 할인' 등등 할인 판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경원처럼 할인경쟁으로 몸살을 앓던 의류 매장은 수년 전부터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가격정찰제를 적극 실시하며 소비자들의 가격 신뢰를 회복시켰다. 그동안 들쑥날쑥하던 의류 가격이 철저한 가격정찰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 것이다.

본지는 2017년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안경 가격의 신뢰도 조사를 위해 '가격표시제가 필요한가'를 물었다. 이 설문조사에서 소비자의 90.7%(194명)가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안경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7.5%(16명), '실시 안해도 된다'는 0.9%(2명)에 불과했다.

이제, 가격정찰제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소비자가 원하면 그 어떤 것이라도 따르는 것이 판매의 왕도이고 시장의 순리이다. 더구나 안경원 매출을 올리는 가격표시제라면 멈출 이유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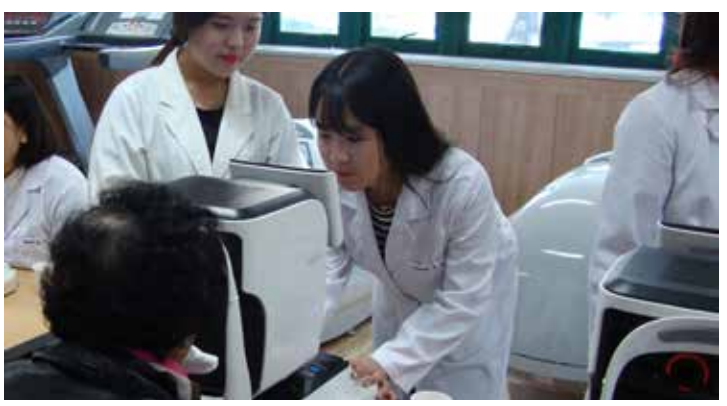
안경원 벗어난 **선글라스 고객** **이제부턴 도둑질 빼고 다하자**

고객이 선글라스 구입 장소로 안경원을 외면한지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선글라스가 온라인에 이어 백화점이나 면세점에 등장한 후 안경원의 선글라스 고객 발길이 끊겼다. 더구나 이제는 선글라스가 홈쇼핑뿐만 아니라 각종 보험사의 사은품으로 증정되고, 2~3년 전부터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팔로우를 자랑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선글라스를 특가상품으로 무한대로 판매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선글라스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1.7% 증가한 약 3천400억원이다. 다만 백화점은 물론 온라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선글라스 판매가 급신장하는 반면 안경원은 고객이 찾아오지 않고 있다. 안경원의 선글라스 고객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것이다.

20년 전만해도 안경원의 1년 매출 중 선글라스의 비중은 30~40%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제는 본지의 설문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선글라스 고객의 10명 중 1명이 안경원에서 구입할 뿐이다. 대안협은 3년 전부

안경업계의 미래개척을 위한 산학연 공동의 노력이 절실해 지고 있다.



터 선글라스 시즌 전인 4월에 선글라스 데이를 실시하는 등 고객의 발길을 안경원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 이제는 선글라스 고객을 모으기 위해 도둑질만 빼놓고는 무엇이든지 다해야할 때이다.

큰 폭 감소한 안광과 입학생 백년대계 위해 모두 협치해야

국내에 안경광학과가 처음 개설된 때는 1983년으로 대구보건대학교가 그 출발점이다. 이후 안광과는 전국 50여 대학에 개설될 정도로 인기를 모으다 최근에는 43개 대학으로 축소되었다. 더구나 수년 전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이 신입생 채우기에 급급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입시의 4년제 안광과는 12개 대학에 총 지원자는 2,916명이다. 10년 전인 2010년도의 4,707명과 비교하면 무려 38%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고, 안광과 학생 수는 매년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안광과는 2021년 38개 대학에 1,657명으로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등의 증가와 달리 유일하게 감소하고 있다.

본지는 2020년에 안광과의 입학생을 늘리기 위해 학과명을 옵토메트리학과나 시기능관리학과, 비젼케어학과 등으로 변경을 제안한 바 있다. 학과명 개명으로 신입생이 늘어난 타 학과를 보고 제안한 것이다. 그만큼 안광과의 우수한 신입생 충원은 국내 안경산업의 백년대계를 위해 절대 필요한 사안이다. 국내 안경과 관련한 산학연의 긴밀한 공조와 협조가 시급하다.

안경원 외면하는 종사 안경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나서야

코로나가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종사 안경사의 해고가 급증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코로나로 매출이 급락하면서 종사 안경사들이 시간제 근무 또는 요일제 근무 등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코로나 이전에 종사 안경사 4명을 고용한 안경원은 2명으로 줄이는 등 종사 안경사의 근무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최근 안경사를 구인하려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젊은 안경사들이 안경원을 외면하는 등 전직 또는 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안경원이 종사 안경사를 구인하려고 관련 사이트에 올려도 보름 동안 문의 전화 한 통이 없을 정도다. 지난해 6월 대안협 홈페이지에 구인 글은 350건, 7월엔 1,203건, 8월 785건, 9월 597건, 10월에는 842건이 올라올 정도로 전국 도처에서 구인란을 겪고 있다.

현재 국내의 새내기 안경사는 물론 중견, 책임자급까지 모두 안경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젊은 안경사들이 안경원을 기피하는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조기 정년, 잦은 근무처 이동, 적은 임금 등등 수없이 많다. 종사 안경사에 대한 보다 과감한 근무환경 개선과 근본적인 처우 대책 등이 시급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와 대응만이 '살길이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2022년. 지금 전 세계의 최대 화두는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이다.

현재 안경원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가상 피팅을 통한 온라인 안경 판매부터 키오스크(Kiosk; 터치스크린 방식의 정보전달 무인단말기)를 통한 무인점포 등장, 또 라섹수술에 이은 노안교정수술이 유행하며 시시각각 밀려오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편의점은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하며 생활잡화에 이어 상비약, 배송, 킥보드 충전, 세탁소, 공과금 수납, 중고폰 수거까지 나서고 있다. 안경원의 수동적인 대응과 달리 적극 대처하고 있다.

학자들은 50년의 세월은 인간의 체온까지 변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50년 전 성인의 평균 체온이 36.5~36.8도였던 것이 지금은 90%의 현대인이 1도 이상 떨어지고, 어린이들은 37도에서 35도 초반대로 떨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더구나 의류와 패션 브랜드는 세계화되고, 휴대폰, 전기차 등이 초고속 혁신을 이루고 있다.

이제 안경원은 시대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안경원의 필수 아이템으로 간주하던 선글라스와 공테, 심지어 콘택트렌즈까지 제2 제3의 판매처에서 판매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안주하거나 방관할 수 없다. 안경사들은 이제부터 더욱 강력한 전문성 추구와 함께 미래 먹거리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본지와 전국 안경원 연중무휴 5大 캠페인

① 20세 이상 성인에겐 맞춤형 누진 처방하자!
시력 변화 없는 20세 이상 성인은 맞춤 안경이 적합
시 기능의 정확한 사용 위해 개인맞춤안경 처방해야

② 국민 시건강 위해 안경 2장 이상 처방하자!
주시거리 틀린 안경 오래 착용하면 두통·안통 발생
시환경 변화로 근거리용·원거리용 교차 사용 바람직

③ 안경원의 새 먹거리 '스마트글라스'를 선점하자!
국내외 유명 글로벌社 5~10년 내 '스마트글라스' 개발
안경광학과에 'AR/VR과목' 개설 등 사전 대비해야

④ 안경의 조제 가공료를 청구하자!
국가 면허인의 서비스료 청구는 당연한 권리와 의무
안경원의 영업권 개선위해 안경의 가공료 제도화해야

⑤ 안경 가격정찰제를 철저하게 지키자!
안경원간 오랜 가격경쟁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최저
안경계의 건강한 미래 발전 위해 가격정찰제 준수해야

새 정부, 규제샌드박스 강화 발표

승인 여부 결정 3년에서 90일 이내로 단축… 대안협, '안경 온라인은 이미 종결 사항' 강조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유예해 주는 '규제샌드박스'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 4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정부 시절 시행된 샌드박스의 승인 여부 결정에 최장 3년까지 걸렸던 것을 신청 후 90일 이내에 최종 심사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시행될 예정인 것. 또 그동안 스타트업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규제 면제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과 달리 앞으로는 정부 부처들이 직접 규제 면제나 유예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의 '샌드박스 플러스'를 추가키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 갈등이 큰 사안들을 선정해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로 추진하던 안경류의 온라인 문제도 안경업계에 또 한 번 불어닥칠 것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조치로 안경업계에선 '안경사 1인의 복수 안경원 개설' '콘택트렌즈의 홈쇼핑 진출' 등이 샌드박스에 제안될 위험성이 커져 우려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연말 (사)대한안경사협회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도수테 온라인 판매 사안은 2021년 11월 작성된 합의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완전히 종결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 협회장은 "당시 합의문 작성할 때 나중에 어디서 비슷한 제안을 해도 '이러이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해당 사안을 반려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연구하자는 조항을 합의문에 넣었으므로 불쑥불쑥 제안될 때마다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이유로 전면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44)868-9205

서울시 특사경, 17억원대 짝퉁업자 58명 입건

유명 선글라스 등 2,505점 적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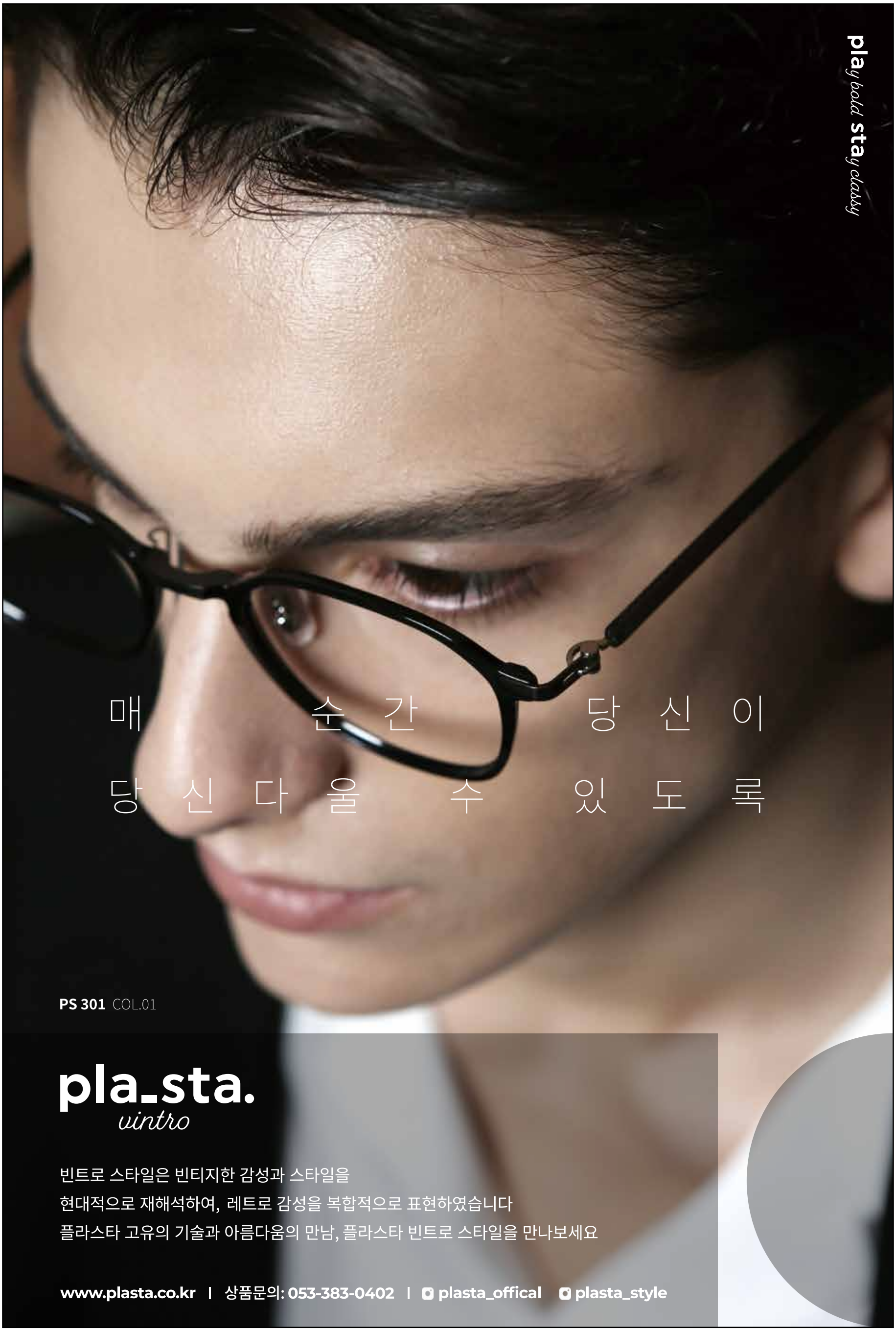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특사경)이 상표권 침해 행위의 근절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집중 단속한 결과,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남대문 일대 대형상가 및 강남, 명동 일대에서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을 판매해온 업자 58명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은 유명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비롯해 의류와 가방, 골프용품 등 총 2,505점으로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약 17억 5천여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지난 7일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특사경의 주요 적발 사례 중엔 위조 명품 선글라스를 정품으로 속여 서대문구 신촌 소재의 'ㅇㅇ안경'에 판매한 공급업자를 입건한 사건이 있다. 공급업자 A씨의 경우 정품가 53만원 상당의 짝퉁을 9만원에 구매한 후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14만 5천원에 납품했고, 판매자는 이를 소비자에게 3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 보관하는 경우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 특사경 강옥현 단장은 "위조상품 판매가 온/ 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사력을 집중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 마포구의 한 안경원 원장은 "짝퉁을 판매한 안경사는 분명 가짜임을 알고 판매했을 것"이라며 "대다수 안경원은 정직하게 정상제품을 판매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안경사들로 선량한 안경사들이 뭉뚱그려 비난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그는 "명품 선글라스의 위·변조는 안경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모두 비정상적인 제품을 몰아내는데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02)2133-8913


play bold stay classy
매 순 간 당 신 이
당 신 다 울 수 있 도 록
PS 301 COL.01
pla_sta.
vintro
빈트로 스타일은 빈티지한 감성과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레트로 감성을 복합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플라스타 고유의 기술과 아름다움의 만남, 플라스타 빈트로 스타일을 만나보세요
www.plasta.co.kr | 상품문의: 053-383-0402 | plasta_offical plasta_style

오직 회원! 오직 실력! 안경사가 더 존경받는 사회! 경기도안경사회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안경사회 회원 여러분,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입니다.
경기도안경사회는 국민 눈건강 전문가 안경사가 더 존경받는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문명발달과 첨단기술의 등장은 인류의 일상과 가치를 새롭게 정립해왔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 산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new normal)을 이끌어 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과잉공급 시대 종식과 함께 개인맞춤(bespoke)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단순 가격경쟁은 한계에 달할 것이며, 이 과정 속에서 혹독한 구조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실력은 기본입니다. 나아가 검증된 실력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국민 눈건강 전문가 안경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안경사회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고 오직 실력으로 인정받는 국민 눈 건강 전문가 안경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경기도안경사회와 31개 시•군 안경사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경기도안경사회가 희망이 되겠습니다.

– 경기도안경사회 임원 일동 –

경기도안경사회 회장 최병갑

회장 최병갑
수석감사 이시우 **감사** 이장노
행정윤리부회장 윤일영 **재무부회장** 송병철 **대외홍보부회장** 이정우 **교육부회장** 박준식 **총무부회장** 궉기정
정책위원장 박창근 **제도개선위원장** 윤태정 **윤리법무위원장** 홍성호
윤리이사 이관우 **제도이사** 김정은 **연구이사** 조정철 **재무이사** 차진우 **조사이사** 윤의영 **홍보이사** 이강호 **대외협력이사** 김명수
정보이사 채수동 **이업종이사** 최재봉 **교육이사** 정해두 **학술이사** 박소현 **보건이사** 이채영 **사업이사** 이은미 **국제이사** 이선로
복지이사 주상민 **기획이사** 이동욱 **관리이사** 최재용 **법제이사** 정동영

시·군 회장단
가평 이경원 **고양** 이정우 **과천** 한종철 **광명** 김민용 **구리** 송영수
군포 전찬순 **남양주** 민정현 **동두천** 김희철 **성남** 최은숙 **수원** 윤일영
시흥 손수형 **안산** 오광수 **안성** 이벽규 **안양** 이승훈 **양주** 한상운
양평 조경희 **여주** 석광주 **연천** 윤상운 **오산** 윤태정
용인 박상진 **의정부** 임은덕 **이천** 임형준 **파주** 장인환
평택 박종남 **포천** 김동율 **화성** 홍성철

경기도안경사회

특허출원제
10-2020-0092567
항균코팅
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녹농균 99.9% 차단

가디안렌즈 유사품에 속지마세요!

가디안렌즈의 진품 구별방법

- 렌즈에 표시된 입김 마크 'Guardian'을 확인하세요.
- 빨간색의 항균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안경렌즈 봉투에 적힌 'Guardian 가디안' 브랜드명을 확인하세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안경렌즈

- 녹농균/황색포도상구균 99.9% 차단
-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 검사 통과
  (특허출원 제10-2020-0092567)

시력지킴이 '가디안 항균렌즈'

- 가디안 항균렌즈는 평면(PL)만 여벌 공급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낱벌도 개인맞춤으로 생산합니다.
- 가디안 항균렌즈는 봉투에 출고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가디안렌즈 생산범위

- 야간 운전용 항균렌즈 Y2
- 골프 전용 항균렌즈 K3
- UV청광 화이트 항균렌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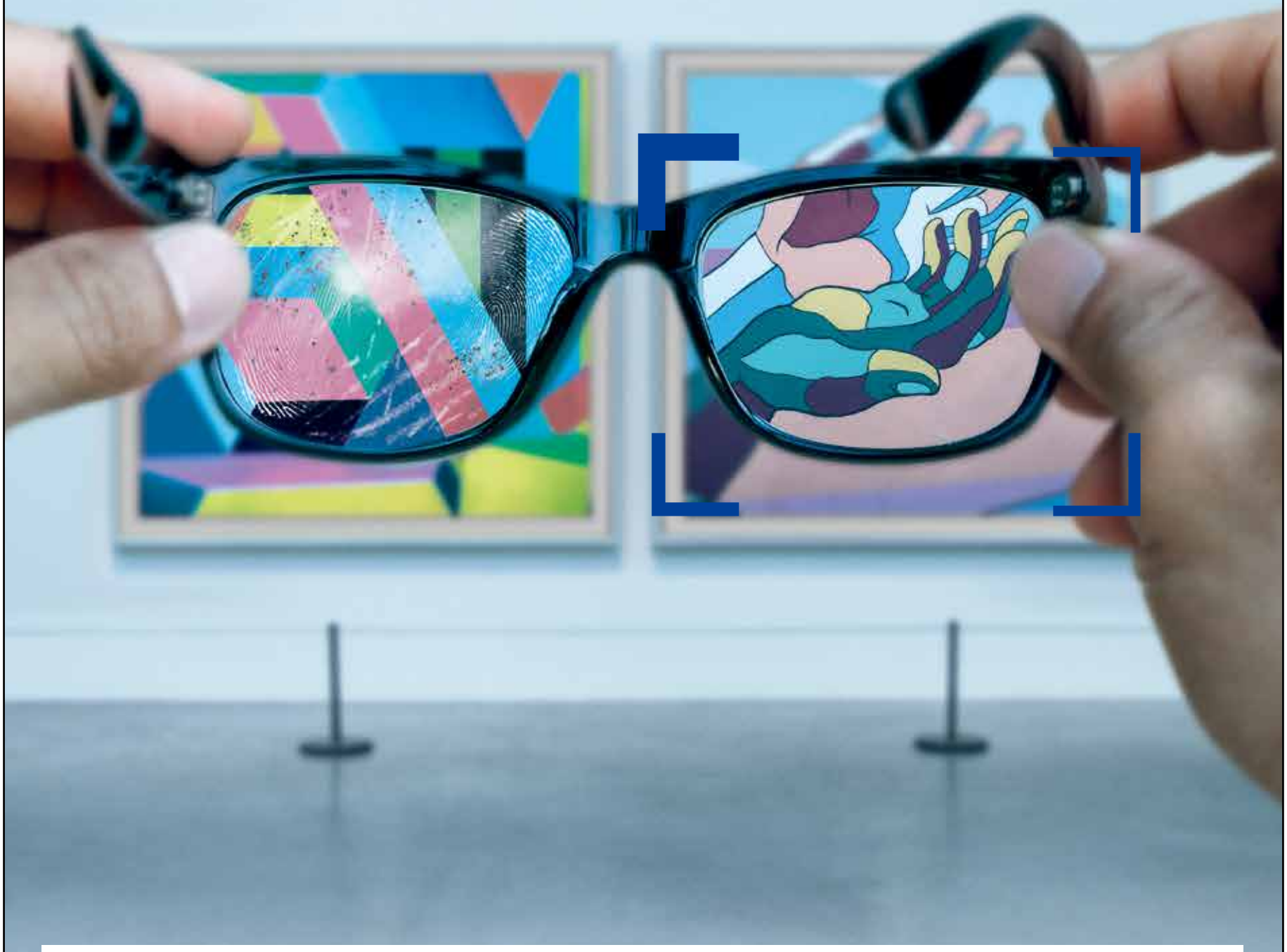
since 1984
Guardian

ZEISS

Seeing beyond

선명함을 높이는 작은 습관

– 언제, 어디서나 렌즈 와이프



자이스 렌즈 와이프 이벤트
소비자 체험용 6매 샘플 및 홍보 POP 증정

- **기　　간 :** 2022년 7월 4일 ~ 8월 31일
- **내　　용 :** 24매 또는 100매 동일 제품 2박스 구매 시. 체험 패키지 증정
- **참여 방법 :** czv.co.kr 사이트 상단 '주문' 선택
  ▸ 렌즈 와이프 선택 ▸ '이벤트 전용' 렌즈 와이프 제품 선택

zeiss.com/cleaning

눈 건강을 생각하는 전문기업 쿠퍼비전

쿠퍼비전®

장시간 편안하게
마이데이® 원데이

높은 산소투과율과 장시간 지속되는 촉촉함

높은 산소투과율 제공

높은 함수율 제공

자외선 차단 기능 보유

쿠퍼비전®
원데이 렌즈 마이데이®

이 제품은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로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심의번호 22022-ET1-03-0013, 22022-ET1-03-0014 (유효기간 25.02.04)
시력보정을 위해 각막에 직접 부착하여 일회용으로 착용하는 친수성 실리콘하이드로겔 근시를 포함한 난시용 렌즈로서 활동시간 동안 착용하고 야간 취침 시에 착용을 하지 않습니다.

축 지령300호

발송부수•열독률 1위 '옵틱위클리'… 32大 톱기사 선정

다양하고 깊이 있는 객관적 공정보도로 열독률도 1위인 옵틱위클리… 매호마다 3면 톱기사에 안경사 관심 모아

201호 팩렌즈 가격파괴… 업권 사면초가

안경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팩렌즈의 가격붕괴를 차단하기 위한 업계 공동의 노력이 절실해지고 있다.

212호 안경렌즈 도매가격 폭로… 안경사들 '발칵'

한 안경렌즈 도매업체로 추정되는 곳에서 안경렌즈 도매가격 자료를 온라인에 게재해 관련업계는 물론 안경원이 충격에 빠졌다.

213호 대구 3공단 안경 제조업체 '생산 뚝'

대구지역 안경 제조업체의 생산 환경을 조사한 결과, 내년도 신상 선글라스의 개발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4호 안경원 장비 복원!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지 52개월 만에 안경원의 장비가 첨단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개정•복원되는 쾌거를 이뤘다.

216호 안경사들, '조제가공료 청구'에 몰표

본지의 신년특집 설문조사 결과, 응답한 안경사의 94.3%가 조제가공료 청구에 찬성하는 압도적인 열망을 나타냈다.

222호 안경원 선글라스… '도둑질 빼고 다하자!'

안경원의 선글라스 판매가 온라인은 물론 TV 홈쇼핑, 인스타그램 등과 결합한 새로운 소비변화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227호 신상 미신고 안경사에 경고장 발송

복지부가 오는 7월 초에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1만 4천여 안경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238호 안경원 죽이는 온라인법 완전 폐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에서 삭제된 지 52개월 만에 안경원의 장비가 첨단시대에 맞게 디지털로 개정•복원되는 쾌거를 이뤘다.

242호 대안협, 연회비 단일화 '만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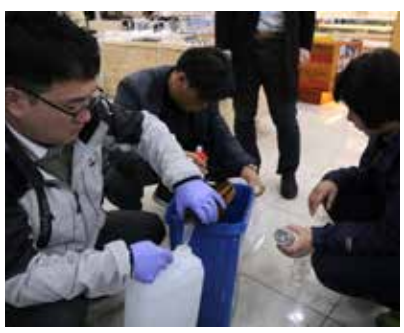
대안협 중앙회의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개설자와 종사안경사의 협회비를 단일화 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244호 침체된 시장서 활로 찾는 일본 안경원

매출 감소가 계속되는 일본 안경계는 안경의 패션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시도를 선보이면서 불황극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46호 대안협, 정부에 '안경 국가지원' 요청

대안협이 4•15 총선 이후 정부에 안경의 국가지원과 공무원시험 시 안경사의 가산점 부여에 대해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248호 환경부, 여론에 밀려 안경원 폐수 내년 7월부터 단속

안경렌즈의 폐수를 규정하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국내 안경원은 2021년 6월 30일까지 적합한 여과장치를 갖춰야 한다.

253호 군납 안경 낙찰업체, 허위 기재 의혹으로 '시끌'

대구의 한 안경업체가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전투용 안경의 납품과정에서 허위실적으로 낙찰 받아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255호 너무 처참한 남대문 • 명동 안경원 매출

국내의 대표적 안경원 밀집 지역인 남대문과 명동지역 안경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째 매출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258호 안경광학과 입학정원… 형평성 논란

감사원 조사결과 교육부가 지난 18년간 법적 근거 없이 안경광학과의 입학정원을 규제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259호 정부, 끝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꺼냈다!

국무조정실이 주최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도수안경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가 2022년 7월 15일자로 지령 300호를 맞는다. 그간 본지는 업계에 노정된 다양한 현안을 객관적 시각으로 보도해 대다수 안경사들로부터 가장 읽을거리가 많은 '믿을 수 있는 언론'이란 의견을 들으며 창간 때부터 열독률 1위를 유지해 왔다.

「옵틱위클리」는 지령 300호를 발행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발전과 미래화 추구를 위한 선도 전문신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각오이다.
다음은 201호(2018년 5월 31일자)부터 299호(2022년 6월 30일자)까지 본지에 기재된 메인 뉴스 100개 중 32대 톱기사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262호 공테고객 소개하는 체인… '당신의 의견은?'

온라인에서 구입한 안경테 고객에게 안경렌즈 조제를 안경원에 소개하는 신흥 체인이 등장해 업계에 찬반양론이 나오고 있다.

264호 30년 후퇴한 안경렌즈 가격… 10만원으로 인상하자!

안경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가운데 특히 고품질이면서 최저가인 국내의 안경렌즈 가격을 인상해야 한다는 안경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268호 앗! '24시간 무인 안경점포' 등장!

2021년 3월 국내 최초로 경기도 일산에 '24시간 무인 안경점포'가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업계에는 찬반양론이 대두되고 있다.

270호 안경사 명운(命運) 쥔 헌재… 주문 향방은?

현재 국내 안경사들은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법률 심판하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71호 다양해진 시(視)환경… 20세 이상은 누진 처방하자!

국내 안경광학과 교수진 일각에서 국민의 안 보건을 위해 20세 이상 성인에게 개인맞춤 안경을 처방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272호 지금은 안경을 2장 이상 사용하는 시대

20세 이상 일반 성인도 올바른 시력관리를 위해 근거리용과 원거리용 등 2~3장의 안경을 교차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278호 온라인 되면 끝장! 안경사 시위 갈수록 맹렬!

기획재정부의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추진에 결사반대하는 안경사들의 1인 시위가 점차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확산되고 있다.

279호 헌재서 곧 나올 콘택트 온라인 심판… 외국 사례는?

2020년 헌재에 위헌제청된 의기법 제12조 제5항의 종국결정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콘택트를 판매 중인 미국 등의 사례를 알아봤다.

283호 꼭꼭 숨은 젊은 안경사… 안경원 구인난 심각

근래 안경사의 구인이 예전에 비해 힘들어지면서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근무조건의 과감한 개선 등이 시급해지고 있다.

284호 육군 방독면 • 고글의 클리렌즈→ 이제 안경원서 맞춘다

대안협이 육군군수사령부와 장병들의 안경 제공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 안경원의 수익창출에 적잖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285호 안경원 찢는 '도수테 온라인'… 안경사 승리!

지난 5개월간 기재부의 한걸음모델에서 논의했던 도수테의 온라인 판매 문제가 안경사의 희망대로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286호 중국 전력난, 국내 안경산업에 불똥

근래 중국발 전력난으로 중국산 안경 완제품과 부속품의 수급이 늦어지면서 국내 안경생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93호 곧 출시될 '스마트글라스'… 안경원 대응은?

레이밴 스토리즈의 최신 버전을 판매하는 국가가 늘면서 국내 안경사의 보다 적극적인 스마트글라스 대응이 시급해지고 있다.

296호 늪에 빠진 매출… 안경원 줄여야 탈출한다

국내 안경원은 현재 1만곳 이상으로 출혈경쟁이 불가피한 시장구조이기에 안경원을 축소시킬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7호 물가폭등 속 안경가격만 나홀로 하락

국내의 모든 제품의 가격이 가파르게 인상되는 가운데, 유독 안경가격만 하락하는 이상 현상을 개선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299호 백내장수술에 메스 댄 대법원… 안경원엔 '낭보'

대법원이 '백내장수술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결, 앞으로 보험료 무적용으로 안과 병원의 노안교정 수술의 위축이 예상된다.

다비치 • 호야렌즈 업무협약

상품 공동개발과 디자인 기술 협력 체결… 전략적 마케팅 공동 전개

㈜다비치안경체인(대표 김흥수)이 글로벌 광학전문기업 한국호야렌즈㈜(대표 정병헌)와 성공적인 파트너십 유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의 다비치안경 본사에서 개최된 체결식을 통해 향후 양사는 ▶상품 공동개발 ▶안경렌즈 디자인 기술협의 ▶누진 및 단초점렌즈 판매 확대를 위한 사업확장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다비치의 곽흥대 본부장은 안경렌즈 판매 성장의 전략과 카테고리별 기회를 제시하며 "양사는 안경시장의 확대를 위해 시력교정이 필요한 인구의 절반 이상의 소비자들에게 제품별로 소비자 타깃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전략적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야렌즈 아시아태평양 진 써지 총괄대표는 "자사는 다비치와 함께 안경렌즈 시장을 성장시키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누진렌즈와 단초점렌즈 분야가 큰 성장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호야렌즈 아시아태평양 진 써지 총괄대표(사진 좌측)와 다비치안경체인 김인규 회장.

문의 02)752-6177

창립 20주년 에실로, 컨퍼런스 성료

비즈니스 성공 사례 공유… 소효순 대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최선 다할 터"

㈜에실로코리아(대표 소효순)에서 창립 20주년을 맞아 안경사를 대상으로 '시너지&이노베이션 위드 에실로 엑스퍼트 컨퍼런스'를 지난 13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 동대문스퀘어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2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약 200여 안경사가 참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안경업계와 다양한 산업군에서 참고할 수 있는 소비시장의 트렌드 와인사이트 등 비즈니스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더욱 강화된 VIP 파트너 프로그램인 '에실로 엑스퍼트' 프로그램이 심층적으로 소개됐는데, 체계적인 검안 프로세스부터 고객에게 가장 최적화된 맞춤형 렌즈 처방, 조제 가공, 안경렌즈 착용 후 관리까지 전문 비전케어 컨설팅 트레이닝을 받은 안경 전문가를 양성하는 방안이 전달됐다.

이날 에실로코리아의 소효순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자사는 대면 컨퍼런스를 통해 안경업계의 모든 파트너사와 시너지를 창출하고, 자사에서 제시하는 비전과 핵심 비즈니스 전략을 공유하는, 그동안 에실로가 쌓아온 혁신을 제시해 기쁘다"며 "특히 자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안경렌즈 시장의 트렌드를 분석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강조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문의 1600-8121

'2분기 비젼케어 아카데미' 성공리 마감

바슈롬, 교육 이수자만 700명 기록… 교육 만족도 98%로 3분기 교육 기대감↑

㈜바슈롬코리아(대표 김형준)의 비젼케어 아카데미가 2분기 온라인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안경사 1천명 이상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바슈롬의 상반기 온라인클래스 교육은 이수자만 7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또한 바슈롬 비젼케어 아카데미에서 진행한 상반기 온라인클래스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290명의 안경사 중 98%인 000명이 '바슈롬 교육이 렌즈 추천과 피팅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는 등 압도적인 만족도를 나타내 향후 추가교육에 대한 기대도감을 높였다. 이어 안경사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는 '멀티포컬 렌즈' '토릭렌즈' 순으로 나타나 기능성렌즈에 대한 니즈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바슈롬 교육팀의 관계자는 "오는 3분기 비젼케어 아카데미는 안경사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토릭렌즈 피팅에 대한 포인트 교육과 멀티포컬 렌즈 이해를 돕는 기본교육 2가지를 추가로 개설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070-7167-9922/ 9927

손재환의
'안경 피팅의 정석' ③

안경 피팅의 최종 조정

무게 분산을 위한 다리 구부림, 즉 구부림은 다리 끝의 귓바퀴와 맞추어 정확하고 부드럽게 구부려 안경이 앞쪽으로 흘러내림을 수직방향을 이용해 막아주고, 측두공과 귀의 형상에 뒷붙임을 해주면 안경을 안정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사항은 흘러내림과 통증을 방지하는 뒷붙임, 또 측두골의 다양한 형태에 맞게 뒷붙임, 귀와 뒷붙임 등 3가지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1 다양한 다리의 뒷붙임 상황

1. 기하학적 고정법

이어 안경의 최종적인 조정은 기하학적 고정법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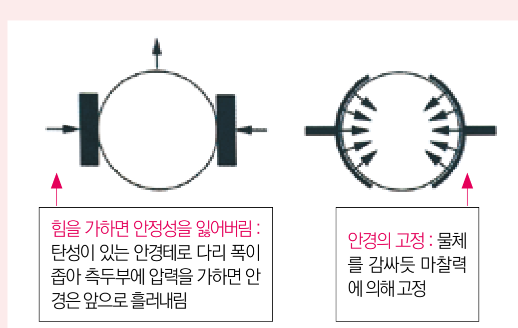


그림 2 기하학적 고정법

물체의 윤곽 구조를 이용해 외부에 압력을 가하지 않고, 물체를 감싸듯이 마찰력에 의해 고정하는 것을 기하학적 고정법이라고 한다. 탄성 물체를 고정할 때 외부에 힘이 들어거면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려는 탄성에 의해 물체는 안정성을 잃는데, 탄성을 가진 안경테를 머리에 안정·고정하기 위해 기하학적 고정법이 필요하다.

2. 자석효과

안경의 흘러내림 방지와 무게를 후방으로 보내려면 다리 끝부분을 귀 뒤의 측두골 형상에 맞게 피팅해야 한다.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이 과정은 다리 맞춤이 정확하게 조정되면 안경을 후방으로 당기는 힘이 생기고, 자연적으로 안경을 두부에 빨아들이는 듯한 착용감을 느끼는데, 이것이 바로 자석효과이다.

3. 당김 테스트

안경의 전면부 힌지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잡고 좌우를 살짝씩 조금 앞으로 잡아당기면, 그때 끌려나오는 느낌으로 피팅 상태를 판단할 수 있다. 보통 끌려나오는 정도는 1~2mm가 적당하다.

4. 압력과 마찰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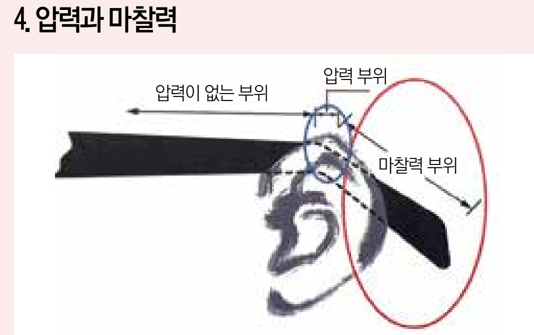


그림 3 다리의 압력과 마찰력 부위

안경을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서는 귀 정점 부위에서의 압력과 귓바퀴-측두부에서 마찰력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귀 바로 위쪽의 정점 부위의 머리 부분에만 압력이 가해지고, 이 지점 이후에는 마찰력으로 안경이 고정된다. 이 2가지 조건이 완벽해야 안경을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듯한 자석효과를 느끼고, 안경 전체의 중량을 분산시켜 장시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압력과 마찰력의 적정 비율은 압력 20~30%, 마찰력 70~80%가 적정하다.

〈계속〉

MZ 세대나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에
최신 기술로
고객을 검안하는
인텔리 느낌의 안경원이
가능할까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의
모던 하우스풍 인테리어와
거기에 어울리는
다양한 안경테들이
있을까요?

가맹 절차나
조건들이 까다롭지 않으면서
지역 특성에 맞춰,
제품 판매에
자율성이 있나요?

Yes.

글라스타 안경 체인은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심플하게 답합니다

안경 체인 고민될 땐 - 심플하게!

글라스타 안경 체인

글라스타 안경 체인은 원장님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
안경원의 매출 증대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로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글라스타 안경
GLASTAR

가맹 문의
010-8677-8143

Ch 글라스타 안경 체인 ⊕

감일점 / 강일리버파크점 / 강릉교동택지점 / 개봉점 / 거리공원점 / 고성군청앞점 / 공덕점 / 관양점 / 기흥구갈점 / 김포운양점 / 논현경복점 / 동국대점
마곡나루역점 / 마산내서점 / 마산양덕점 / 미사역점 / 부천시청역점 / 사당점 / 삼송점 / 상암점 / 서충주점 / 석계역점 / 선부점 / 성균관대정문앞점
세교점 / 송내점 / 수원망포점 / 숭실대점 / 시흥대로점 / 신정점 / 아주대구내점 / 역북점 / 왕십리점 / 원주혁신도시점 / 응암점 / 의왕역점
이천이현고앞점 / 잠실점 / 장호원점 / 죽전점 / 청주오창점 / 평촌점 / 하남신장점 **신규가맹** 서초점 / 청라SK뷰점

신기술과 예술의 결합… '샤르망 라인아트'

팬텀옵티칼서 온/오프라인 판매… 신소재 엑셀런스 티타늄 채택으로 초경량과 부드러운 착용감 실현

Line Art
CHARMANT

일본 샤르망그룹의 뛰어난 기술과 예술적 감각이 결합된 Line Art 시리즈는 전 세계 부인용 아이웨어 브랜드 중에서도 하이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다. 2009년 일본에서 처음 선보인 라인아트는 최첨단 신소재인 엑셀런스 티타늄을 사용해 착용감이 가볍고 부드러운 것으로 유명한데, 심지어 착용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상쾌한 기분을 제공해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라인아트 등 샤르망의 컬렉션은 한국 공식인증 대리점인 팬텀옵티칼(대표 장용찬)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 판매 중이다.

문의 070-7711-5002

▶Menuet(미뉴에트)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무곡 '미뉴에트'처럼 우아하고 역동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컬렉션이다. 1개의 라인이 대담하고 우아하게 교차하는 디자인은 바로 리드미컬한 무곡처럼 마치 아르누보 양식의 중세기 성당을 보는 듯한 우아한 리본의 곡선 템플이 완성됐는데, 고품질의 컬러가 완성도를 상승시켜 주고 있다. 엑셀런스 티타늄의 유연함과 얇은 템플로 특별한 착용감을 즐길 수 있다.

▶Quintet(퀸테트)

'오중주'란 의미의 퀸테트는 5개의 엑셀런스 티타늄을 5개의 선으로 구성된 악보처럼 결합해 참신하고 우아한 이미지를 연출했다. 착용감과 우아함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으며, 현대적인 디자인과 우아한 컬러는 고급스런 화려함을 더해 주고 있다. 샤르망의 라인아트를 상징하는 컬렉션이란 찬사를 받고 있다.

▶Quattro(콰트로)

콰트로는 숫자 4를 의미하는데, 평면의 선과 둥근 선 등 4개의 엑셀런스 티타늄이 결합해 쌓아 올린 듯한 템플이 특징이다. 독창적인 구조와 소재 특성, 그리고 얼굴형에 따라 단계적인 최상의 착용감을 실현했다. 특히 고급스럽고 품격 넘치는 디자인은 정장에 잘 어울린다.

PLUME

네이버에서 **플럼몰** 검색

플럼 베스트셀러

초경량 콤비 하금테

P-2896 / 2897 / 2898

콤비 하금테 스타일을 플럼만의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신상품

PLUME DISPLAY SET EVENT

플럼몰에서 **10만원 이상** 구매시
플럼 디스플레이 세트를 드려요

증정 이벤트 기간 : **07월 31** 까지

한 아이디(안경원)당 1회 한정 증정

+ 신규고객 추가 사은품

30x30cm 대형
초극세사 안경닦이 2장

코팅나사 100개

코나사 100개

에어 코받침 20개

QR코드 스캔하기

플럼몰 이용안내

1. 플럼몰 회원가입
2. 카카오톡 **플럼몰** 검색 / 채널 친구 추가
3. 카카오톡으로 플럼몰 아이디 /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전송
4. 관리자 승인 후 이용가능

www.plumemall.com
070-4257-6102
#플럼몰 #플럼안경 #플럼아이웨어 검색

plume.eyewear
Plume Eyewear
blog.naver.com/plum_eyewear

서울시안경사회 제21대 집행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함께 만들어요! 안경사의 행복한 미래

■ 서울시교육청 제로페이 사용품목 "안경" 선정 요청 부문

서울시와 구청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 대상 : 신입생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30만원 지원
○ 2022년도 사용품목 : 교복, 디지털학습장비
○ 지원금제공 방법 : 포인트 선물(휴대폰)
○ 2023년도 사용품목 안경 포함 요청
※ 서울시교육청(담당사무관)과 업무협의
2023년도에는"안경"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저시력 학생 증가로 긍정적 검토 후 채택 답변

■ 안경원 불법 과장광고 등 처리와 구청(보건소) 업무협조 요청

구청(보건소) 방문 후 안경원의 과장광고 현수막 설치 및 할인 등 행정단속 협의

○ 2021.04.16. 동작구 ○ 2021.04.28. 강북구 ○ 2021.04.28. 노원구
○ 2021.04.30. 도봉구 ○ 2021.05.18. 종로구 ○ 2021.06.10. 성동구
○ 2021.06.11. 구로구 ○ 2021.06.18. 은평구 ○ 2021.07.12. 금천구
○ 2021.07.21. 강남구 ○ 2021.08.11. 관악구 ○ 2021.08.18. 중 구
○ 2021.09.13. 양천구 ○ 2021.10.13. 중랑구 ○ 2021.10.15. 강서구
○ 2021.12.14. 서대문구

■ 안경원 무면허자 처리 부문

○ 강남•은평구분회 관내 무면허자에 대하여 분회장 협조 및 지부 협업으로 자료 수집.
각 보건소에 고발과 보건소에서 현장 확인, 대상자 형사고발
※ 안경원 폐원과 위법 대상자 형사처벌(개인정보로 형량 미확인)

■ 안경원 자동차 이용 광고 처리 부문

○ 강동구분회 관내 'E체인' 차량 이용한 광고를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차주 소재지 관할 고양경찰서에 고발 조치
○ 관악구분회 관내 'E체인' 차량 이용한 광고를 옥외광고법 위반으로 차주
소재지 관할 고양경찰서에 고발조치
○ 도봉구분회 관내 '모 나라' 차량이용한 광고를 노상적치 불법 광고매체로
도봉구청에서 행정조치

■ 서울시안경사회 소속 회원사업 부문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한 '스마트오더기술지원'
사업에 서울시안경사회를 '지원단체'로 선정(전국 2,000여 개 중 5개 단체 선정)
○ 스마트오더기술지원
– 기술지원 부문
• 단말기 무상지원 • 나이스오더(앱 사용권 부여) • 트릭패스(관광용 앱 설치)
– 기술지원금 부문
• 안경원 169개원⇒59,150,000원(안경원 당 350,000원)
○ 효과 : QR결제 가능, 12억 명의 위쳇페이 사용자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어로 안경원 홍보 가능

■ 안경 온라인판매 반대 활동 부문

○ 정부는 '제37차 비상경제중재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기재부가
추진하는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신규 과제로 선정.
○ 반대 1인 시위 전개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 전개(전국 최초 시행, 분회 및 임원 협조 진행)
– 2021. 6. 25 ~ 8. 27간, 2인 1조로 08:00~10:00, 11:30~13:30 실시
○ 국회의원 접촉 후 반대 서한문 전달 등 협조 요청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분회 직무교육 부문

○ 분회 직무교육 : 2021. 4. 14. (회관 대강당)
○ 분회 직무교육 10여년 만에 실시
○ 회무·재무·윤리업무 전반에 대해 교육 실시

■ 안경원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부문

○ 시청방문 : 2021. 7. 14.
○ 업무협의 : 서울시청 물환경정책과 담당 주무관 접촉 면담 실시
○ 업무진행 :
– 회장 등 임원 3명과 2021. 6. 30까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와 관련하여 시설의 설치
미비한 안경원에 대하여 구청(담당부서)이 현지방문 계도 및 홍보 후 단속 요청
– 정책이사가 직접 25개 구청을 방문해 담당부서와 업무공조는 물론 소속 회원 안경원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신고업무 지원
※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서울시청(시민건강국) 간담회 부문

○ 시청방문 : 2022. 3. 3.
○ 업무협의 : 서울시청 시민건강 국장(보건의료정책과장) 간담회
○ 협의내용 : 산하 보건소에 공문을 통한 업무지시 요청
– 보수교육 이수 안경원 관리 자율점검 항목 추가
– 면허신고 미이행자 면허효력정지 안경사 적법 조치
– 안경원 불시 점검, 법령 위반사항 단속
– 안경원 이외의 장소 근용안경 판매 단속
○ 업무진행 : 각 보건소에서 개설 안경원에 위 사항 고지 공문 발송

■ 업무협약 추진 부문

○ 대학교(안경광학과) 업무협약
– 2021. 05. 07. 국제대학교 – 2021. 05. 12. 서영대학교
– 2021. 11. 30. 을지대학교, 여주대학교, 신성대학교
○ 산업체 업무협약
– 2022. 05. 26. ㈜백산광학

(사)대한안경사협회 서울특별시안경사회

특허 3건
10-2037123
10-2127686
10-0118423

이안옵틱에서는 출원, 등록된 특허 재산권에
대해 지속적 유지,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무단 도용 및 복제에 주의 바랍니다.

PIOVINO

Slim & Air

Line up

Color O-ring

Sand brown

Ruby wine

Stone gray

‘ New-tro design ’ : 새로움(New) + 복고(Retro)
무테만의 클래식한 감성에 젊은 경쾌함을 녹여내다

이안옵틱(주)
EEANOPTIC CO.,LTD.
서울 강동구 성내동 440-4 만성재빌딩 2층 TEL 02-482-1477

안경사 면허신고 안내

안경사는 국가면허를 소지한 **보건의료인**입니다

안경사는 **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해야 합니다

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면허신고란?

안경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매년 법정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매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함.

미신고시 불이익은?

면허미신고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의 효력이 정지되며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면허효력정지 상태에서 업무 수행 시 적발되는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벌 받을 수 있음.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는?

교육 대상자라면 **반드시 보수교육 이수 후 면허신고까지 완료해야 함**.
관련하여 협회는 안경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자세한 안내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

안경원의 판도를 뒤집다!

경제적 불안감과 코로나 19로 인한 보복 소비 심리로 인한 소비 양극화 현상. **해답은?**
ONE PRICE 로 안경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다.

2way 매출 전략으로 확실한 매장 경쟁력!

토탈 아이웨어 스토어
GLASS ME × LENS ME

01 YOUTH

젊은 브랜드, 합리적인 서비스

- '안경구매는 어렵다' 편견을 깨고, 친근한 옵션 판매형식으로 전환
- 젊은 감각이 드러나는 브랜드 이미지 & 합리적인 서비스

02 LENSME

최고의 마케팅 지원

- 주요 SNS 채널을 통한 브랜드 퍼포먼스 마케팅
- 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일상에서의 브랜드 노출
- 렌즈미X글라스미 뮤즈 '스테이씨'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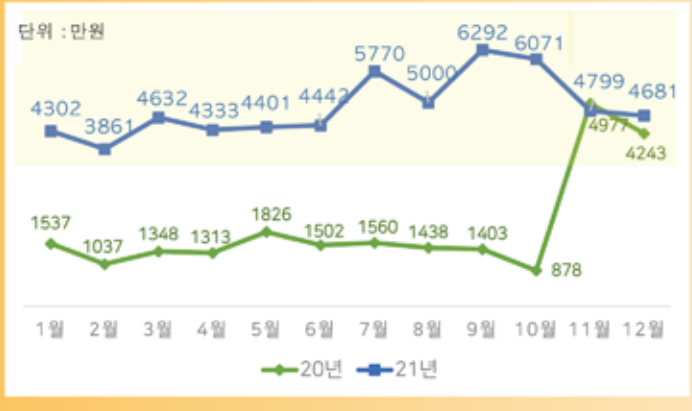
03

체계적인 교육 & 관리 시스템

- 사전 교육과 오픈 지원교육, 온라인 전문성 강화교육 진행
- 슈퍼바이징을 통한 가맹점 지속소통 및 만족도 향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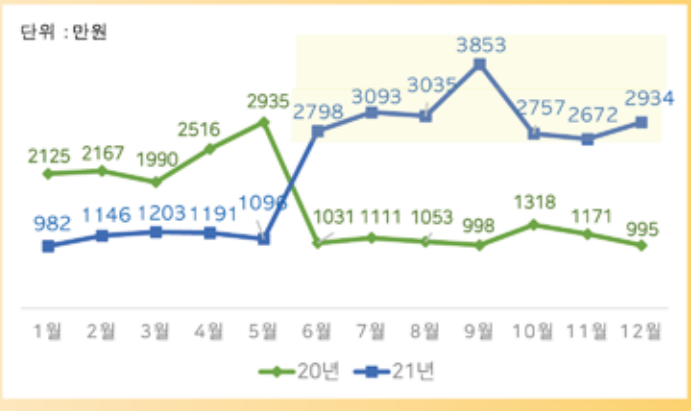
코로나에도 글라스미는 성장합니다.

1. △△점 – 확장 이전 오픈 매장 (오픈일 : 20년 11월)



월 평균 354% 성장 (1월~10월)

2. □□점 – 글라스미 전환 매장 (오픈일 : 21년 06월)



월 평균 275% 성장 (6월~12월)

가맹문의 김진우 부장 010-9487-9045 | 정재완 과장 010-8349-6052